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출장 목적

출장자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위	연구위원	성명	김동식
출장기간	2017.8.21.(월) ~ 8.25.(금) (3박 5일)		출장지	미얀마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청의 위탁과제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와 관련하여, 선정된 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에 건립된 해외농업기술센터인 KOPIA 방문○ 미얀마 KOPIA센터에서 수행 중인 ‘벼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KOPIA 파견 한국인 담당자 및 현지 미얀마 농업연구국(DAR) 관계자, 그리고 사업 시행 지역마을 현지 남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해당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 과정 내 성인지적 상황을 파악, 성인지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출장 일정

일정	대상자	소속	시간	성함 및 성별	
8월22일 (화)	○ 현지 주민	○ 미얀마 네피도 자브티리 지역, 세인사빈 마을	09:30~ 11:00	우저민	남
				아웅투웅우	남
				우민나이	남
				도킨뎌	여
				에이에이튀이	여
	○ 현지 공무원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DAR)	14:00~ 15:00	San mar Lar 선임연구원	여
	○ 현지 파견 담당자	○ 미얀마 KOPIA	15:00~ 16:00	김대수 소장	남

일정	대상자	소속	시간	성함 및 성별	
8월23일 (수)	○ 현지 주민	○ 미얀마 만달레이 차우세 지역, 꼴라 및 피반 마을	09:00~ 11:00	도린린미	여
				우킨마운쥔	남
				우빠	남
				우세아웅	남
				우저민	남
				우민마웅	남
				민민에이	여
8월24일 (목)	○ 현지 공무원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09:00~ 09:30	Myint Yi 선임연구원	여
				Thant Lwin Oo 부국장	남

해외출장 보고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미얀마 출장 보고서(2017. 9. 21 ~ 2017. 9. 25)-

2017. 9.

I. 출장개요

가. 출장과제명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나. 출장배경

- 농진청이 추진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농업기술 공여 및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을 주도하여 국격을 제고하여 해외농업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UN을 비롯한 OECD DAC에서는 국제사회 개발협력사업(ODA)을 추진함에 있어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 본법에서도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여성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등을 기본 정 신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진청의 KOPIA센터 사업들이 수원국 현지 주민의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이런 목적 하에 여러 사업들 중 KOPIA 미얀마의 ‘벼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됨

다. 출장목적

- 미얀마 KOPIA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수행 중인 ‘벼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대한 세부 사업별 추진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등, 그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OECD DAC에 근거하여 실시
- KOPIA센터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미얀마 농업관계부 농업연구국(DAR) 관계자(공무원) 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KOPIA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적 측면에 대해 듣고, 성인지 적 접근의 필요성 및 실제 이와 관련된 추진 내용들 등에 관한 상황을 파악
- KOPIA센터와 DAR이 추진하는 사업의 실수혜자이면서, 참여자인 현지 마을주민 남녀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의 동기 및 이를 통한 성과, 그 과정에서의 성별 차이와 차별, 불평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의 필요성 확인

- 위와 같이 KOPIA센터 직원 및 미얀마 부처 관계자,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사업에 있어 성인지적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 자료 생산

라. 출장개요

- 출장지: 미얀마

- 출장자: 1인

<출장자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농업 현황 분석 • KOPIA센터 관계자 면담 • 미얀마 DAR 관계자 면담 • 현지 지역 2곳, 마을주민 남녀 면담 • OECD DAC에 근거한 평가

- 출장기간 및 일정: 2017.8.21. ~ 2017.8.25. (3박 5일)

일정	대상자	소속	시간	성함 및 성별	
8월22일 (화)	○ 현지 주민	○ 미얀마 네피도 자브티리 지역, 세인사 빈 마을	09:30~11:00	우저민	남
				아웅투웅우	남
				우민나이	남
				도킨뎌	여
				에이에이튀이	여
	○ 현지 공무원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DAR)	14:00~15:00	San mar Lar	여
	○ 현지 파견 담당자	○ 미얀마 KOPIA	15:00~16:00	김대수 소장	남
8월23일 (수)	○ 현지 주민	○ 미얀마 만달레이 차우세 지역, 꿀라 및 피반 마을	09:00~11:00	도린린미	여
				우킨마운쥔	남
				우빠	남
				우세아웅	남
				우저민	남
				우민마웅	남
				민민에이	여
	○ 현지 공무원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Myint Yi	여
8월24일 (목)	○ 현지 공무원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09:00~09:30	Thant Lwin Oo	남
				부국장	

Ⅱ. 주요활동 사항

가. 미얀마 농업 현황 검토(2017.8.21.~8.25)

○ 지리적 여건

-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678천km²로 남한의 6.7배에 달하며,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국경 인접(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 국토는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2,276km에 달하며 서부, 북부, 동부지역은 해발 915m에서 2,134m의 산지지역으로 동남아시아의 대륙 국가 중 가장 긴 나라.
- 산간지, 고원지, 해안지와 평야지에서 8대강 유역으로 형성된 농업지대에서 경지이용으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 종사 인구는 41,437천 명으로 총인구의 약 60%.
- 지형적으로 미얀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산간지역과 고원지역에 의해 서로 분리되는 강 유역으로 구성.
- 4대강은 Ayeyarwaddy강, Chindwin강, Thanlwin강과 Sittaung강이며, Ayeyarwady 강 유역은 미얀마 최대 곡창지이며 양곤 주요 항만이 위치한 전략지역으로 약 5백만 ha의 광대한 삼각주 형성.

○ 토지 이용

- 경지면적은 12.2백만 ha(국토면적의 약 18.1%)이며, 이중 논이 66%로서 벼농사 위주 농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 경지의 분포는 북부에서 남부로 펼쳐진 거대한 평원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양의 비옥도가 높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배수시설이 미흡하여 우기에는 대부분의 농토가 범람되므로 천수답 논농사 위주의 생산구조.
- 건기에는 일부 관개답의 벼 2기작 이외에는 대부분 농토에서 작물재배가 힘들으나, 수리시설 확충으로 밭작물 재배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국토의 8.3%인 5.6백만 ha는 개간가능지로 개발 여하에 따라 작물 재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 보유.

○ 기후조건

-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우기(Monsoon), 10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는 건기(Winter)로 건조하면서도 서늘한 겨울이 오고, 2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는 건기로서 더운 계절(Sume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 연간 강우량은 지형적 차이로 지역에 따라서는 728~5,825mm의 범위에 있으며, 해안과

산지지역은 1,045~5,825mm, 중북부 건조지대는 728~849mm 수준.

- 온도는 더운 계절에는 30~34℃, 중부지역과 건조지대의 서늘한 계절에는 10~15℃로 차이가 심하며, 반대로 북서부 Chin주 산간지와 동부 Shan주 고원지역은 7~29℃로 비교적 낮음.

○ 농업생산기반

- 4대강인 Ayeyarwady강, Chindwin강, Thanlwin강과 Sittaung강 이 있고 이를 포함한 8대강 수자원은 지표수 8,280억톤과 지하수 4,950억톤 등 총 13,230억톤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수자원이 풍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 농업용수의 원천은 강수량으로서 기상환경의 강우분포 특성으로 건기에는 관개 없이는 작물재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므로 안전 지속농업생산을 위한 관개시설의 확충이 중요.
- 이모작 등 다양한 작물재배는 다목적 댐이나 관정을 건설함으로써 촉진되었고 '88~12년까지 건설된 관개시설은 댐 235개소, 하천 양수시설 327소 및 지하수 관정 8,312개소로서 관개시설은 중북부평야지의 Mandalay주, Magway주, Sagaing주와 중남부평야지의 Bago주, Ayeyarwady주, Yangon주에 집중.
- 미얀마의 총 파종면적대비 관개면적 비율은 16.7%로서 세계평균 18.8%, 아시아 평균 34.6% 보다 낮으며 캄보디아 7.0%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수자원은 풍부하나 관개 시설 확충이 경지이용도와 수량성 향상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
- 연도별 관개면적의 변화 추이를 보면 농경지의 파종면적 증가와 더불어 '87/'88년도 1,000천 ha에서 '10/'11년도에는 2.3배로 증가하였으나, 경지면적의 관개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관개시설 확충과 더불어 농로, 구획정리 및 농기계 보급 시급.
- 작물별 관개면적은 작물별로는 총 관개면적의 75.5%가 수도작이고 13.3%는 기타식량작물로서 식량작물 관개 위주이고, 작물별로는 재배면적대비 관개면적비율은 벼 27.8%보다도 밭작물인 밀과 옥수수 관개면적비율이 27.8~32.7%로 더 높아서 벼의 우기재배 강우의존이 높음.

○ 농업생산 현황

- 미얀마 농업은 GDP 비중 및 외화 수입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미얀마의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열대기후는 최적의 농업환경을 제공하여 60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 재배 가능(안선하, 2016).
- 그러나 미얀마에는 농업관련 인프라가 낙후되어 주변국(예: 베트남, 태국)에 비해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임.
- 1930년대에는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이었으나, 그동안 군사 독재체제 하의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독점하며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인구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의 증가와 신규 농경지 확대 한계, 기술수준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정체로 쌀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

정부의 쌀 수출 독점은 2011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쌀 수출이 자유화된 상태임.

○ 주요 작물 생산 현황

-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 생고무,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 미얀마의 콩은 쌀과 더불어 대표적인 1차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1987년 이후 콩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늘어남.
- 미얀마에서 콩은 쌀에 비해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거래가 자유로웠고, 이에 농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었음.
- 곡물류 중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벼로서 2000/2001 작기에 6,138,000 ha가 재배되었고 2008년부터 8,000,000 ha 선에서 재배면적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새로운 농지의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 벼 생산량 또한 2008년까지는 상당량이 증가하다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농업기술 및 품종의 보급이 늦어지고 농업기계화기 미흡한 것이 그 이유.
- 쌀과 콩 다음으로 미얀마에서 중요한 농산물은 유지종자(oil seed)임. 대표적인 유지종자는 낙화생유(ground nut oil)과 참기름(sesame oil) 등이 있으며, 낙화생유는 미얀마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함.

○ 미얀마 농업 정책

-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시기를 겪으며 농작물 소규모 재배 방식을 대규모 생산 방식으로 탈바꿈하여 수출지향형 생산을 추구함. 이는 미얀마의 농작물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1930년대 미얀마는 ‘세계최대 쌀 생산지’라는 명성을 얻게 됨.
- 1948년 독립 이후, 군부의 쿠데타로 군사 독재 치하에 놓인 미얀마는 정부가 쌀을 비롯한 42개의 주요 특용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장기화시킴에 따라 사실상 자유시장경제의 기능을 상실. 농산품 수급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었고, 농업기술 수준도 점차 낙후되면서 한계에 도달.
- 정부는 1999년대부터 시장의 민가부분 역할을 점차 확대시켰으며, 2011년 이후부터 농민의 경작권을 소유권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

○ 정부 수매 정책

- 1989년 WTO 회원국 가입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는 쌀의 배급체계와 수매제도를 독점 유지해왔으나, 2003년부터는 동 제도를 일부분 폐지하고, 2011년에는 완전 폐지함.
- 정부의 수매물량 보관방식은 전국의 각 지역별 창고에 군부대에서 보관(미얀마경제공사와 군부대 합동)하도록 하였고, 군인, 공무원들이 배급해왔고 그 중 일부는 수출

물량으로 정해져있음.

- 쌀은 정부가 정한 수매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상의 손실을 본 적이 없으나, 국제가격 하락 시에는 수출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

○ 생산 정책

- 미얀마는 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얀마농업개발은행(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MADB)을 통해 1에이커 당 103달러의 한도로 융자를 도왔음. 농가에서는 파종 때 차입이 가능하고 수확 시에는 상환을 해야만 했음.
- 정부에서는 종자개량 개발을 위해 농가에 종자를 원가로 판매하였고, 설비투자부분에서 농기계 판매 및 대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음.
- 또한 향후 기반시설 개발, 영농 기계화 발달, 기술 지원 등 농가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농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다소 실행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농자재 현황

- 미얀마 농가의 우량 품종과 비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음. 종자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국산 비료 생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생산비가 높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실정임. 국산 농기계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여전히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대다수 농가는 생산성이 낮은 종자를 사용하고 있음. 벼 종자의 경우 농가가 직접 채집하여 다음 해 다시 사용하거나 이웃 농가로부터 구입함. 이러한 종자는 농자재 투입비율이 높고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고, 수확 및 도정 과정에서 손실률도 높음.
- 경제작물을 제외한 종자와 투입재 생산은 전적으로 농업국(DOA)의 소관임. 1987년 인증을 획득한 주요 작물 종자의 생산과 보급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줄곧 재정 부족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주변국들에 비해 미얀마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음. 미얀마의 비료 사용은 동남아 국가들 평균의 약 10%, 베트남의 약 7% 수준임. 비료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비료 구입을 위한 신용서비스가 취약하고 저질의 불량 비료 판매 비율이 높기 때문임.
- 1993년까지 비료 가격에 상당한 보조금이 반영되었으나 보조금이 사라지자 국내 시장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치솟았고, 정부는 민간부문이 비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입세도 면제시켜줌. 이러한 조치와 경쟁이 없는 비료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료산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시장 진입에 매우 소극적임
- 농지가 확대되고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OAI)가 농업 기계화를 장려하는 가운데 농기계 보급이 증가하고 있음. 1995년 9,900대였던 경운기는 2011년 188,500대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수기는 107,800대에서 178,424대로 증

가함. MOAI의 30년 마스터플랜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기계화율을 6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움.

나. 인터뷰 진행 (2017.8.22.~23)

○ 지브티리 지역 주민

- 일시 및 대상: 2017.8.21.(화), 09:00~11:00, 현지 주민 5명(여성 2명 포함), KOPIA센터 장 참석
- 주민 중 마을 최고 어른이면서, 과거 농업관계부에서 근무한 남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얀마 현지 지역의 농업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음
- KOPIA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대표는 모두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남성(배우자)이 전달해 주는 정보를 전달받는 형태였고,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의견권자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음. 이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사업에서의 배제, 차별,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남녀가 함께 인터뷰하면서, 여성들에게 좀 더 집중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에서 남성 위주의 사업 추진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하였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성이 지닌 전통적 성역할, 그리고 사회적 가부장제성으로 인해 여성이 농업인으로서, 여성으로, 어머니로서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 여성들 역시 의사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고, 그것이 곧 사업에서의 남녀 평등의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함.



<그림> 지브티리 지역 주민 인터뷰 모습

○ DAR 관계자

- 일시 및 대상: 2017.8.22.(화), 14:00~15:00, KOPIA 센터에서 DAR 소속인 San mar Lar 선임연구원과 인터뷰
- 현재 KOPIA센터와 미얀마 DAR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담당자로서, 본 사업이 지닌 방향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실제 미얀마의 성평등 정책과 본 사업이 연계된 설정이 사전에 없었고, 미얀마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대상 성인지적 교육은 없고, 본인 역시 이 사업에서의 성인지적 접근과 전략이 있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함
- 그렇지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히 농민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도 여성의 참여가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가부장적 측면이 강하게 남아있고, 농업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KOPIA의 사업이 좀 더 남녀 농민들에게 평등한 성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에 근거한 사업 계획과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함.



<그림> DAR 관계자 인터뷰 모습

○ KOPIA 관계자

- 일시 및 대상: 2017.8.22.(화), 15:00~16:00, KOPIA센터의 김대수 센터장과 인터뷰함
- 본 사업의 연혁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현재 3대 센터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2대에서부터 미얀마 정부와의 MOU가 체결되어, 실제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4년부터라고 함.
- 김대수 센터장은 작년 3월에 부임하였고, 올해 연말까지가 임기임. 이 기간 동안 현재 세부과제가 4개이며, 이 과제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함.
- 한국벼 품종의 현지 적응 및 품종 개발
 - 한국벼 미얀마 지역 적응성 평가 결과, 미얀마 대표 품종인 쉐테인 보다 높은 수확량을 나타내는 벼품종은 한아름벼, 다산2, 삼강벼
 - 여교잡(backcross) 방법으로 4개 조합(한아름+파산바카, 한아름+MR219, 다산2+

파산바카, 영풍+파산바카) 교배

- 상반기(건기) 각 조합별 F1세대 생산, 하반기(우기) F1을 이용하여 F2세대(종자) 생산, 4개 조합에서 78계통(line) 선발
- 벼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기계모내기 시험 결과, 수량성은 기계모내기(3.4t/ha)가 손모내기(3.7t/ha) 보다 적었으나, 이앙 당시 모의 소질이 매우 약하고 논 물이 깊어 생육이 어려운 것과 일부 관련
 - 최적 재식밀도 시험 결과, 건·우기 재배시험에서 단산2, 쉼테인 모두 가장 높은 재식밀도(20x10cm)에서 수량이 가장 높음
 - 최적 비료시비량 시험 결과, 건·후기 평균 수량은 다산벼(8.59t/ha), 쉼테인(8.03t/ha)이 높음
 - 벼 파종 적기 시험 결과, 다산2는 7월 1일, 쉼테인은 8월 1일 파종에서 9.16과 7.76t/ha로 각각 최대 수량을 보였음
- 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 벼 손실률 최소화를 위한 수확적기 시험(우기) 결과, 한국 벼(다산2, 영풍)는 개화 후 35일, 쉼테인은 30~32일로 나타남
 - 벼 수확 후 불규칙적인 강우 상황에서 안전하게 건조하는 기술(평상건조기 vs. 자연태양건조 vs. 태양버블건조기)을 적용, 현지에 맞는 적합 안전건조기술 개발 보급
-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육성
 -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3개소(자부티리, 제야티리, 차우세) 조성
 - 한국벼 3품종과 미얀마 7품종을 농민들이 수시로 비교·관찰할 수 있도록 전시, 종합평가회 개최(10.18). 이외 기계모내기와 손모내기 비교, 흔어뿌림 및 줄뿌림 직파 재배 비교 전시
 - 벼 재배기술 농민교육 8회 512명 참석
- 본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이나, 세부 프로그램 내에서는 공감을 하나, 현 사업이 지닌 기술성, 과학성이 가장 큰 부분인 만큼, 실제 성인지적이 반영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이를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성과의 도출 방향 등 전 사업의 과정에서 성인지적 방향이 설정되어, 연구의 지침 등에 있다면 이는 향후 성인지적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개선책도 제안함

○ 차우세 지역 현지 주민

- 일시 및 대상자: 2017.8.23.(수), 09:00~11:00, 차우세 현지 주민 7명(여성 2명 포함),

- DAR 관계자(Myint Yi 선임연구원), 미얀마 농업관계부 관계자, KOPIA센터 관계자
- 지역: 차우세 지역은 KOPIA센터가 소재한 네피도(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 전날(21일) 야간에 이동
 - 차우세 지역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우량품종에 관해 주로 얘기를 나눔
 - 특히 우량품종 개발에 있어 KOPIA의 역할이 컸고, 이는 미얀마 현지 농민들에게 있어 현재의 농업 업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계기가 됨. 그 이유는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농업 행위를 넘어, 우량품종이 지난 상품성과 그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큰 방향을 제안한 사업이었기 때문
 - 실제 농민들과의 대화에서 지난 해 우량품종 기술 도입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농가소득이 80만원 안팎이었다면, 1년이 지나 도입 이후는 2배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함. 올해는 더 큰 상승폭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실제 농민교육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간과되곤 하는데, 실제 현지에서는 기술 이전에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은 아주 중요하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프로그램임을 확인함
 - 성인지적 측면에서도 여성 농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실제 차우세 지역 우량품종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여성이었고, 여성이었기에 여성 농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도 함. 이것이 실제 본 사업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적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농가소득에 있어 동일한 농가수입을 얻었더라도, 여성 농민의 경우 야간시간 혹은 이른 새벽시간에 관개작업에 따른 안전문제로 외부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농가소득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음.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인됨.



<그림> 차우세 지역 주민 인터뷰 모습